

전국시대 국가의 발명

푸코, 스키너 등의 유럽 근대국가의 등장 역사연구를 보면, 그에 상응하는, 꼭 같지는 않더라도 변화들이 전국시대에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대’적 국가라고 부를만한 사상과 실천이 이미 전국시대에 나타났음을 보이고, 그것이 정치사상사에 갖는 함의를 논해보며 함.

1. 통치기술의 준거로서 근대국가, Foucault, 2007, 상군서

- 법, 윤리, 신학, 등의 다른 모든 가치기준과 구분되는 새로운 합리성과 통치의 준거이자 목표로 국가가 17세기 초 유럽에서 등장, 국가이성의 의미(F 276-277, 286)
 - 근대 국가는 이 합리성의 실천으로 정의할 수 있다”the state is a practice”(F 277)
 - 이 합리적 통치는 윤리 등의 다른 모든 영역과 구별되는 주권자에게만 귀속되는 독특한 통치(government)
 - 마찬가지로 상군서 등에서 국가를 다스린다(治)라는 개념이 새로운 합리성의 준거로 작동
 - 왕의 도가,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일, 군주의 수신은 중요치 않음, 상군서 3편4, 常官則國治, 壹務則國富, 國富而治, 王之道也. 故曰:王道作, 外身作壹而已矣
 - 도덕과 구분되는 배타적인 군주의 영역으로서의 통치, 상군서 18편 7, “仁者能仁於人, 而不能使人仁;義者能愛於人, 而不能使人愛. 是以知仁義之不足以治天下也.”
 - 맹자에도 제후의 보물을 국가의 자산으로 재정의, 맹자 진심 하 28 “孟子曰:「諸侯之寶三:土地, 人民, 政事. 寶珠玉者, 殃必及身。」”
 - 관자의 경우도 비교가능(Meyer 48), 『管子』七法 “世主所貴者寶也, 所親者戚也, 所愛者民也, 所重者爵祿也, 明君則不然, 致所貴, 非寶也, 致所親, 非戚也;致所愛, 非民也;致所重, 非爵祿也, 故不為重寶虧其命, 故曰:「令貴於寶」。不為愛親危其社稷, 故曰:「社稷戚於親」.”
 - 맹자와 상군서의 비교 필요, 맹자 양혜왕 상1,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王曰『何以利吾國』? 大夫曰『何以利吾家』? 士庶人曰『何以利吾身』... 未有義而後其君者也”, 국가를 왕이 사적소유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상군서와 같은 국가를 최고 목표로 하는 통치의 합리성을 제시하지도 않음, 대안으로 인의제시, 인의를 확보하면, 국가통치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 맹자는 상군서나 국가이성과 달리, 孝悌忠信을 진작시켜 민들의 습성을 길러 국가의 힘을 키우고자 함, 양혜왕 상 5, 王如施仁政於民, 省刑罰, 薄稅斂, 深耕易耨. 壯者以暇日修其孝悌忠信, 入以事其父兄, 出以事其長上, 可使制挺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
 - Meyer 2011, 92 에 따르면, 맹자는 국가를 인의를 내세우는 유자들의 사제관계에 종속시키려 했음 “Mencius will brook no subordination of the Master-disciple fellowship to the bureaucratic state, it does not balk at the prospect of subordinating the bureaucratic state to the Master-disciple fellowship, proving that the authors of this text understood that the bureaucratic state was here to stay.
 - 순자는? 강국편, “故人之命在天, 國之命在禮.” 성악편, “故為之立君上之執以臨之, 明禮義以化之, 起法正以治之, 重刑罰以禁之, 使天下皆出於治, 合於善

也.” 예가 곧 국가이성이지만, 예를 수립하는 방식이 민의 자발성보다는 위로부터의 규율에 의지.

- 중세의 보편적 우주론, 끝이 있는 우주의 질서와 독립적인 통치공간의 등장 결과
 - F 259. With this analysis of *raison d'État* we see the emergence of a historical and political temporality with specific characteristics in comparison with the temporality that dominated the thought of the Middle Ages, and even of the Renaissance, because it is an indefinite temporality, the temporality of a government that is both never-ending and conservative
 - 비슷하게 『순자』17(천론) 편, 治亂, 天邪? 曰: 日月星辰瑞麻, 是禹桀之所同也, 禹以治, 桀以亂; 治亂非天也。 時邪? 曰: 繁啟蕃長於春夏, 畜積收臧於秋冬, 是禹桀之所同也, 禹以治, 桀以亂; 治亂非時也。 地邪? 曰: 得地則生, 失地則死, 是又禹桀之所同也, 禹以治, 桀以亂; 治亂非地也。 《詩》曰: 「天作高山, 大王荒之。 彼作矣, 文王康之。」 此之謂也
 - 국가이성, 治의 목적은 계속해서 국가를 유지 팽창하는 것, 상군서 23편 3등 “故國治而地廣, 兵強而主尊。 此治之至也, 君人者不可不察也”
- 당대의 사람들이 자신들 사상의 새로움을 인지하고 있었음, 상군서 1편 8. “前世不同教, 何古之法? 帝王不相復, 何禮之循? 伏羲神農教而不誅, 黃帝堯舜誅而不怒, 及至文武, 各當時而立法, 因事而制禮”; 7편 2, “聖人不法古, 不修今。 法古則後於時, 修今則塞於勢”
- 법은 국가이성의 하위 개념
 - the coup d'Etat as the expression of reason of the state. F 261, “the coup d'Etat goes beyond ordinary law.
 - 상군서 1편 6, “子之所言, 世俗之言也。 夫常人安於故習, 學者溺於所聞。 此兩者所以居官守法, 非所與論於法之外也”
- 예컨대 법 또한 국가이성의 도구로서 존재
 - F 262, it posits them as an element of its own game
 - 상군서 14편 1, “國之所以治者三: 一曰法, 二曰信, 三曰權。 法者, 君臣之所共操也; 信者, 君臣之所共立也; 權者, 君之所獨制也”
- 합리성으로서의 폭력, “acts of violence as the purest forms of reason(F 267)
 - 상군서, 7편 3, 古之民樸以厚, 今之民巧以偽。 故效於古者, 先德而治; 效於今者, 前刑而法; 此世之所惑也。 今世之所謂義者, 將立民之所好, 而廢其所惡; 此其所謂不義者, 將立民之所惡, 而廢其所樂也。 ... 吾所謂利者, 義之本也; 而世所謂義者, 暴之道也。 夫正民者: 以其所惡, 必終其所好; 以其所好, 必敗其所惡
- 국가의 일상적인 안정과 혼란에 대한 것이 주된 문제, “the daily life of states”(F 271), 상군서, 순자, 맹자 다 해당
- Public opinion, population management(F 272). 민들의 습성을 통제해서 국가의 힘을 기르는 것이 상군서 전체의 문제의식, 상군서 4편, 去強; 6편 6 “民之性, 度而取長, 稱而取重, 權而索利。 明君慎觀三者, 則國治可立, 而民能可得”
- 국가이성의 기술은 technical knowledge
 - (F 274)So, it is no longer the corpus of laws or skill in applying them when necessary, but a set of technical knowledges that describes the reality of the state itself.
 - 상군서 6편 4, “主操名利之柄, 而能致功名者, 數也。 聖人審權以操柄, 審數以使民。 數者臣主之術, 而國之要也”
 - 상군서 13편 3, 此謂以數治
 - 상군서 24편, 1 通數者不然, 別其勢, 難其道。 故曰: 「其勢難匿者, 雖跖不為非焉。」 故先王貴勢。

- physic of the force of states
 - 농사와 전쟁이 국가의 힘, 상군서 3편 1-2, “民不偷淫則多力, 多力則國強”
 - 상군서 25편 3, 自此觀之, 國之所以重, 主之所以尊者, 力也
 - statistics 의 등장,
 - 상군서 4편 7, “強國知十三數: 境內倉口之數, 壯男壯女之數, 老弱之數, 官士之數, 以言說取食者之數, 利民之數, 馬牛芻藁之數。欲強國, 不知國十三數, 地雖利, 民雖眾, 國愈弱至削。”
 - 상군서 19편 1, 四境之內, 丈夫女子皆有名於上, 生者著, 死者削;
 - 복수 국가의 공존과 경쟁, F 290-296, 국가의 힘이라는 것은 복수국가들이 한정되지 않은 시간동안 경쟁하는 정치공간이 존재해야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상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3편 5-6; 15편 6장,
 - 계속된 전쟁 자체가 국가성장의 조건, 상군서 13편 2, 國貧而務戰, 毒輸於敵, 無六蝨, 必強。國富而不戰, 偷生於內, 有六蝨, 必弱
 - 통일이 꼭 다수국가가 하나의 국가가 됨을 의미하지도 않았을 수 있다. 상군서 17편 2, “攻必凌人之城, 盡城而有之, 盡賚而致之, 雖厚慶賞, 何費匱之有矣.”; 상군서 7편4, “治國刑多而賞少, 亂國賞多而刑少。故王者刑九而賞一, 削國賞九而刑一.”;
 - Republic 으로서의 유럽(F 304),
 - 맹자의 경우, 양혜왕 하 3, “惟仁者為能以大事小, 是故湯事葛, 文王事昆夷; 惟智者為能以小事大, 故大王事獯鬻, 句踐事吳。以大事小者, 樂天者也; 以小事大者, 畏天者也。樂天者保天下, 畏天者保其國.” 위계적 형태의 다수국가 공존 모색.
2. 유럽과 전국시대의 차이, 국가와 천하의 관계가 갖는 이중성,
- 국의 통치가 천하의 통치로 연결됨, 국 상위의 천하라는 통치공간이 늘 존재하고 있으며, 국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음
 - 상군서 7편 5, “夫利天下之民者, 莫大於治; 而治莫康於立君; 立君之道, 莫廣於勝法; 勝法之務, 莫急於去姦; 去姦之本, 莫深於嚴刑。故王者以賞禁, 以刑勸; 求過不求善, 藉刑以去刑”
 - 맹자 이루 상 5 “孟子曰: 「人有恆言, 皆曰『天下國家』。天下之本在國, 國之本在家, 家之本在身”
3. 군주와 국가의 분리 (스키너, Meyer 2011, 상군서)
- 근대국강 등장의 핵심 조건 중의 하나로 스키너가 제시한 것은, 군주의 사적 신체와 구분된 법인격으로서 공적 국가의 등장 “the distinctively modern idea of the State as a form of public power separate from both the ruler and the ruled, and constituting the supreme political authority within a certain defined territory.”(Skinner 1978, 353).
 - 관자 in Meyer 2011, 46. “夷吾之為君臣也, 將承君命, 奉社稷, 以持宗廟, 豈死一糾哉? 夷吾之所死者, 社稷破, 宗廟滅, 祭祀絕, 則夷吾死之, 非此三者, 則夷吾生。夷吾生, 則齊國利, 夷吾死, 則齊國不利.”; Meyer 2011, 48, 『管子』七法 “世主所貴者寶也, 所親者戚也, 所愛者民也, 所重者爵祿也, 明君則不然, 致所貴, 非寶也, 致所親, 非戚也; 致所愛, 非民也; 致所重, 非爵祿也, 故不為重寶虧其命, 故曰: 「令貴於寶」。不為愛親危其社稷, 故曰: 「社稷戚於親」.”
 - 같은 인용에서 사직과 종묘의 차이. 사직은 지배자 가문의 계보와 분리되서 다른 가문으로 넘어갈 수 있음. cf. 맹자 진심 하 14 孟子曰: 「民為貴, 社稷次之, 君為輕。是故得乎丘民而為天子, 得乎天子為諸侯, 得乎諸侯為大夫。諸侯危社稷, 則變置。犧牲既成, 粢盛既潔, 祭祀以時, 然而旱乾水溢, 則變置社稷。」

- 상군서에서도 군주의 덕과 국가능력의 분리, 상군서 6편 5,18편 5
- 공으로서 국가관념, 상군서, 14편 2-3,

4. 도덕, 종교와 분리된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정치

- Skinner, 1978, “the sphere of politics should be envisaged as a distinct branch of moral philosophy, a branch concerned with the art of government.” 푸코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이미 13세기부터 정치영역이 독립하기 시작했다고 봄,
- Vogelsang 2016의 주장은, 비슷하게 정치영역을 독립시킨 것이 법가들이라는 것, 따라서 이들은 political realism이라고 불러야 함. Political realism은 “sets politics as an autonomous sphere of action and understanding apart from other spheres, such as economics, ethics, aesthetics, or religion”(Vogelsang 2016, 44, quote by Hans Morgenthau,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5. 기타질문들

- ‘근대’적 국가가 전국시대에 등장했다면, 국가의 지성사는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 시작은 어디이고 끝은 어디인가?
- 결국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상군서와 같은 완전히 도덕과 절연된 국가 통치의 합리성은 주류가 되지 못했는데, 맹자류의 통치가 주류가 된 것이라면 이를 어떻게 구별해서 개념화 할 것인가?
- 17세기 초 유럽의 경우, 국내의 통치공간과 짝을 이루어서, 군사-외교로 이루어진 국가 간의 합리적 세력균형의 실천과 원칙이 등장했다(F 290-306). 사대를 비슷하게 동아시아의 국내의 통치와 짝을 이루는 국가 간 관계의 합리적 실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나?